

송실철학강좌

- 제1회 (1999. 05. 13): 동서철학 매개의 미래 -조가경
제2회 (1999. 09. 09): 한국미의 조명 -조요한
제3회 (1999. 11. 18): 생활인의 철학 -김태길
제4회 (2000. 03. 16): 한국철학의 정체와 전망 -류승국
제5회 (2000. 05. 18): 플라톤 철학은 아직도
유효한가? -박중현
제6회 (2000. 09. 21): 철학에의 권유 -최명관
제7회 (2000. 11. 23): 문학과 철학 -박이문

초 청 장

제 8 회 송실철학강좌



- ▶ 일시: 2001년 3월 29일(목) 오후 5시
- ▶ 장소: 송실대학교 과학관 103호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02) 820-0370 / fax: (02)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
http://philosophy.soongsil.ac.kr

주최: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후원: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
모시는 말씀

찬바람이 옷설을 파고듭니다. 대로변의 가로수들도 빛 바랜 나뭇잎조차 거추장스러운 듯 하나 둘 떨구어 냅니다. 동면의 먼 길을 떠나기 위한 행장이겠지요.

하이데거지요, 시작(詩作)의 본질은 진리를 건립하는 것이라고 했던 이가? 시작이 존재의 언어적 건립이고 사유(思惟)가 존재의 진리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시작과 사유는 별개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존재의 사유는 예술, 특히 시작에서 원숙한 경지에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송실철학강좌**는 철학적 작업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문학과 맺고 있는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보다 뚜렷이 드러내 보이 고자 합니다. 강사는 그 자신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자 불문학자인 박이문(朴異汶) 교수입니다. 우리의 주제를 다루는 데 더 없이 적절한 분입니다.

가을 학기도 이제 종반을 향해 내닫고 있습니다. 계절의 끝자 락에서 느끼는 뭔가 허전한 심사를 저희 **송실철학강좌**에 오셔서 달래보심이 어떨는지요.

2000년 11월 일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장 **한 석 환**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장 **이 승 하**

행/사/순/서

▶사 회: 김 인 석 박사

17:00-17:10 인사말 · 강사소개

17:10-18:00 송실철학강좌

강 사: **김 충 열** 교수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제 목: 새로운 세기, 동양사상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동양의 자연주의와 법가사상의 성찰

18:00-18:30 질의 · 응답

〈강사소개〉

- 본명: 박인희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교 문학박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시몬즈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역임
- 저서: 『하나만의 선택』,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상학과 분석철학』, 『인식과 실존』, 『문학 속의 철학』, 『예술철학』, 『자비의 윤리학』, 『이성은 죽지 않았다』, 『상황과 선택』,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자연, 인간, 언어』 등